

성명	김동환	수험기간	2022.03.~2024.07.
학교	고려대학교	전공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키워드	기득 상표고득점		

## 들어가며

### ☑ 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61회 변리사 시험에 최종합격하게 된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험에 기득으로 붙게 되었고 총 2년 반의 수험기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합격자 분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며 공부의 방향성을 설정하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합격수기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의 합격자 스토리로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변리사 시험 진입

변리사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중학생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인문계와 이공계 중 어느 계열로 진학할까 하는 것이 고민되었는데, 그 당시 다니던 학원선생님께서 기술과 법을 동시에 다루는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때부터 막연하게 변리사라는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장래희망은 변리사를 적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생활을 하다가 2022년 4월 군대를 전역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시기별 공부 방법

### 【초시】 (2022년 3월 ~ 2023년 2월)

코로나로 인해 군대에서 전역 전 휴가를 미복귀로 장기간 나오게 되어, 휴가 중인 상태에서 1차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TOEIC의 경우 2021년 12월에 미리 성적을 준비해냈고, 타 학원의 종합반을 3월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의 민법, 특허법, 상표법 기본강의를 학원의 커리큘럼대로 수강했으며, 6월부터는 민법, 특허법, 상표법 문제풀이와 동시에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이후 7월부터 8월까지의 2차 특허법, 상표법 기본강의를 가볍게 수강했으며 10월부터 모의고사 및 문제풀이, 최종정리의 테크로 공부했습니다.

당시 성적은 산업재산권법 77.5점, 민법개론 80점, 자연과학개론 70점으로 평균 75.83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 【동차】 (2023년 3월~2023년 7월)

	2-3월	4월	5월	6월
민사소송법	이창한 기본강의	이창한 사례강의	이창한 기초GS	이창한 실전 A, B
특허법	박형준 기초GS+		박형준 실전A	박형준 콜라보
상표법	한경훈 기초GS+		한경훈 실전A	한경훈 콜라보
디자인보호법		정다운 기본강의		정다운 실전

60회 1차 시험의 경우 전년도 대비해서 난이도가 급상승했기에 커트라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고, 당시에는 1차 합격을 확신하기는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던 변리사 시험을 계속 준비해야하는 입장에서 곧바로 이창한 강사님 기본강의와 박형준 변리사님, 한경훈 변리사님의 기초GS+를 모두 수강했습니다.

4월에는 이창한 강사님 사례강의와 정다운 변리사님의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를 수강했으며, 5월에는 이창한 강사님 기초GS, 박형준, 한경훈 변리사님의 실전GS A형을 수강했습니다.

6월에는 이창한 강사님의 실전GS A형, B형 및 박형준, 한경훈 변리사님의 콜라보GS, 정다운 변리사님의 실전GS를 수강했고, 7월에는 별도의 강의 없이 혼자서 정리했습니다.

당시 성적은 특허법 52.66, 민사소송법 55.66, 상표법 51, 디자인보호법 56.33으로 커트라인과 1.XX 점 차이로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 **[기득]** (2023년 10월~2024년 7월)

	11월	12월	1월	2월
민사소송법			곽준형 실전A(2023)	곽준형 실전B(2023)
특허법	박형준 기본강의	박형준 판례강의 박형준 사례강의		박형준 도약GS
상표법	한경훈 기본강의	한경훈 판례강의		한경훈 도약GS

	3월	4월	5월	6월
민사소송법	곽준형 실전A	이창한 실전A	곽준형 실전B	이창한 실전B
특허법	박형준 실전A	박형준 기출 박지환 실전A	박형준 실전B 한승준 실전A 박지환 실전B	박형준 실전B 한승준 실전B
상표법	한경훈 실전A	최지환 실전A	한경훈 실전B 최지환 실전B	한경훈 실전B
디자인보호법		김웅 기초		김웅 실전

동차치고는 준비기간동안 GS도 무리없이 써내고 생각보다 시험을 잘 쓴 것 같아서 시험이 끝나고 발표 전까지는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스터디원과 가볍게 민사소송법 사례 스터디와 특허법 사례 스터디를 제외하고는 일절 책을 보지 않았으며 합격자 발표 이후 곧바로 윌비스 종합반에 등록하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는 학교를 복학해서 6학점을 수강했으며, 이론강의와 학교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11월부터 박형준 변리사님 특허법 기본강의와 한경훈 변리사님의 상표법 기본강의를 수강했으며, 12월에는 박형준 변리사님 특허법 판례강의와 사례강의, 한경훈 변리사님의 상표법 판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1월에는 곽준형 변리사님의 2023년 실전GS A형을 스터디 형태로 풀타임 쓰기 후 인강으로 수강했고, 2월에는 박형준, 한경훈 변리사님의 도약GS 및 곽준형 변리사님의 2023년 GS B형을 풀타임 쓰기 후 수강했습니다.

3월부터는 평일에 이창한 강사님 심화강의와 박형준, 한경훈 변리사님의 실전GS A형, 곽준형 변리사님의 실전GS A형을 수강했습니다. 곽준형 변리사님 A형의 경우 평일 오전에 쓰기 스터디를 통해 풀타임 쓰기를 했습니다.

4월에는 이창한 강사님 실전GS A형, 박형준 변리사님 기출GS, 박지환 변리사님 실전GS A형, 최지환 변리사님 실전GS A형, 김웅 변리사님의 기초GS를 수강했으며, 최지환 변리사님 GS의 경우 평일 쓰기 스터디, 박지환 변리사님의 경우 목차 위주로 가볍게 작성만 했습니다.

5월에는 곽준형 변리사님의 실전GS B형과 박형준 변리사님의 실전GS B형, 박지환 변리사님의 콜라보GS, 한승준 변리사님의 실전GS A형, 한경훈 변리사님의 실전GS B형, 최지환 변리사님의 콜라보 GS를 수강했습니다. 현장GS의 경우 박형준, 한경훈 변리사님의 GS만 수강했고, 나머지는 쓰기스터디를 통해 인강으로 학습했습니다.

6월에는 이창한 강사님, 박형준 변리사님, 한경훈 변리사님의 실전GS B형 수강과 한승준 변리사님의 실전 GS B형, 김웅 변리사님의 실전 GS를 수강했습니다. 한승준 변리사님의 실전B는 목차만 작성했습니다.

이번 61회 변리사 시험에서 점수는 민사소송법 62.66, 특허법 50, 상표법 60.33, 디자인보호법 70으로 평균 57.66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 과목별 공부 방법 - 1차 공부

### 【서】

과목별 공부방법에 들어가기 앞서, 저의 경우 자연과학에서 물리, 화학, 생물 총 3과목에서 베이스가 있어 상대적으로 자연과학개론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자연과학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법개론】

민법의 경우 기본서와 객관식 2가지 교재를 집중적으로 활용했으며, 거의 주된 교재는 객관식 교재였습니다. 하루에 약 4시간씩 민법에 투자했으며 객관식 교재를 6-7 회독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법의 주된 포인트는 양 줄이기였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을 3회독 할 때까지는 모든 지문과 문제를 전부 풀었으며, 3번 연속으로 맞은 문제의 경우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과감하게 문제를 지웠습니다. 알았던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틀릴 수 있었기에 이를 지우는 과정이 굉장히 불안했지만, 문제를 지워나가면서 회독의 양을 압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었고, 결국 시험 막판에는 계속 틀리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계속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서의 경우 가을까지도 거의 활용하지 않았지만, 겨울부터는 다시 기본서로 돌아와서 시험 전 이틀동안 민법총칙+물권, 채권으로 나누어 1회독을 완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법의 경우 한과목으로 생각하기보다,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을 나누어 3과목으로 생각하고 공부 스케줄을 짜는 것이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민법총칙의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그 이후 물권법 문제풀이를 할 때 민법총칙 기본서 회독 등의 방식으로 세 파트를 각각 나누어 스케줄을 짰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민총, 물권, 채권을 모두 고르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법】

특허법의 경우 리담특허법과 준특허법 조판기를 활용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 초반의 경우 리담특허법을 통해 특허법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했으며, 중반부터는 단권화 교재를 찾던 도중 그 해 준특허법 조판기 초판이 나오게 되어 해당 교재를 1차 마무리까지 사용했습니다. 조판기 강의를 당시에는 수강하지 않았지만, 책의 구성이 좋아서 골랐습니다. 조문과 판례를 하나의 책으로 보고 공부를 하고 싶었기에 해당 교재를 활용했던 것에 좋은 기억이 있으며 추후 2차 공부 당시 준특허법과 목차 연계성을 체감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리담상표법과 김영남 변리사님의 핵심이론정리 교재를 활용해서 공부했습니다. 리담상표법의 경우 정말 상표법의 바이블이라고 불릴 만큼 좋은 교재였습니다. 책의 두께감으로 인해 많은 회독을 하지는 않았지만, 리담상표법을 정독하면서 상표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이는 추후에 2차 시험 상표법을 준비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리담상표법의 경우 볼륨이 크기에 자연과학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정독을 위한 시간 배분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유명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 저에게 가장 힘든 과목이었습니다. 시험 막판까지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제일 부족했으며,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해 눈에 바르는 형식으로 간신히 마무리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반드시 어느정도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강사님의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산업재산권법】

대학 입시 과정에서 물리1과 화학2의 수능 준비를 했었고, 대학 전공이 생명과학 분야인 탓에 저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에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일반생물학을 모두 수강하였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으며 기본강의들 보다는 문제풀이 및 기출풀이를 통한 공부를 했습니다.

지구과학의 경우 아예 베이스가 없던 과목인데 주로 듣는 강사님의 강의를 듣지 않아 이 역시 매우 힘들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거의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했으며 마지막까지 불안했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 【결】

1차 시험의 경우, 아무래도 처음으로 변리사 수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아 사전 정보 없이 가격을 기준으로 강의나 교재를 선택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비용에 대한 고민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수강생들이 많이 듣는 강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과목별 공부 방법 - 2차 공부

## 【서】

2차 시험의 경우, 저는 제 판단 하에 나름 불기득, 불동차 혹은 끓는 물동차(?)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차를 잘 보내고 싶으신 분들 혹은 동차 시기를 나름대로 잘 보내고 불기득이 되고 싶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저의 대한 주관적 평가나 GS 성적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이는 좀 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장치입니다.

## 【특허법】

(동차:52.66 / 기득:50)

메인강사 : 박형준 변리사님

메인교재 : 존특허법

특허법의 경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동차부터 기득, 장수생 분들까지 수험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소 어려움을 겪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출제가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61회 시험에서는 무려 9페이지나 되는 지문과 최악의 편집 상태로 출제가 되었기에 모두가 힘들었을 시험인 것 같습니다.

동차 시절에서 제가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특허법 공부방법은 총알의 빠른 암기와 매일 쓰기입니다. 박형준 변리사님의 기초GS+를 듣는 분들은 바로 총알부터 반아서 암기를 하게 될텐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과 동기가 당시 기득 수험생이어서 같이 암기 스터디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총알을 20개 정도 꾸준히 밥을 먹으면서 암기 스터디를 진행했고, 4월 기초GS+ 종강 이전에 총알 2회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GS+를 들으면서 저는 거의 책을 보고 썼기에 책을 보지 않고 쓰는 연습의 필요성을 느꼈고, 실전GS에 들어가기 앞서 스터디원과 매일 오전 8시에 기초GS+ 풀답안을 썼습니다. 이 때는 책을 보지 않고 썼는데 총알 암기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였고, 한 번 풀었던 문제여서 무리 없이 꾸준히 쓸 수 있었고 실전GS에서 덕분에 16페이지 답안을 금방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차 시절 탈락의 요인으로서는 시험장에서 무리한 양 늘리기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특허법 답안지를 18장을 작성했는데 처음으로 양을 늘리다보니 부논점의 기재가 방대해져 주논점이 희석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득 시절은 이하 GS시즌과 비시즌으로 나누어 서술하겠습니다.

비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쓰기”에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 동차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스터디원들과 기초GS+ 매일쓰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동일한 문제로 2번의 풀답안을 썼지만 동차 시험 이후 쓰기 감이 많이 없어져 있

기 때문에 매일쓰기를 진행하였으며 그 쓰기를 통해서 쓰기감을 다시 되돌리고 시즌 전에 다양한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며 연습했습니다. 어떠한 형식이 가장 미학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이 시기에 가장 많은 고민을 했으며, 쓰기와 이론 강의를 병행하다보니 단순히 이론에 대해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어떻게 답안지에 녹여낼 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흡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풀답안 쓰기는 암기의 효과도 있기에 2월 암기스퍼트 때 암기의 정밀도를 많이 높일 수 있었고, 이는 자신감으로 귀결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판례집을 읽으면서 판례를 ‘목차화’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판례가 시험 혹은 GS에 출제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지 예상해보고, 어떤 목차를 활용할 지에 대해 미리 다 목차화를 시켜 공부했습니다. 특히나 법리 부분의 목차 제목 뿐만 아니라 사안포섭에서 어떤 방식으로 목차를 쪼개쓰면 조금 더 간결한 답안을 서술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목차의 라벨링에 대해서는 박형준 변리사님께 쉬는 시간에 종종 질문을 드리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사안에서의 목차 쪼개기는 목차만으로 읽히는 답안지와 더불어 양조절을 하는 데 키가 됩니다. 다만 너무 잘게 목차를 쪼갤 경우 답안의 여백이 늘어나 다소 비어보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글씨체나 글씨 크기를 고려하여 잘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즌의 경우, 비시즌에서 이미 답안형태와 답안 흐름을 얼추 완성해 놓은 채로 진입했기에 최대한 다양한 강사님의 GS를 풀해보려고 했습니다. 다만 비시즌부터 쓰기를 계속 진행해서 손목에 부담이 컸기에 4GS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간단히 목차만 잡아보는 수준에서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형준 변리사님의 GS에서는 주로 가독성 모범답안으로 선정된 적이 많으며, 평균적으로 상위 10퍼센트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GS 성적이 바로 시험 점수와 직결되지는 않으나 후술할 멘탈관리에 있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에 GS 성적을 어느 정도 신경 쓰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상표법】

(동차:51/기득:60.33)

메인강사 : 한경훈 변리사님

메인교재 : 데생 상표법

상표법은 저에게 가장 애증의 과목입니다. 수험생 시절 누구보다 자신 있어 하고 좋아하던 과목이었지만 동차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저득점으로 저에게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한 과목이자 동시에 기득에서 나름의 고득점으로 저에게 합격을 안겨준 과목입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과목임과 동시에 저의 합격 키워드가 상표 고득점인 만큼 이하 상표법 공부방법론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서술하겠습니다.

동차 때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2월부터 한경훈 변리사님의 기초GS+를 곧바로 수강하였습니다. 다만 한경훈 변리사님의 경우 박형준 변리사님의 총알과 같은 자료는 없었기에 최지환 변리사님의 암기자료를 활용하여 동차 초반에는 암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한경훈 변리사님의 강의는 첫 날부터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합성함수, 메타인지 등과 같은 그동안 법학을 공부하며 들어보지 못한 낯선 단어들과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래실정과 출처혼동에 대한 강의는 지금도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경훈 변리사님의 강의 방식은 저에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 무엇보다 답안지에 대해 가지고 계신 견해는 저의 수험생활 전반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기초GS+ 중반부부터 모범답안을 자주 찍었으며, 6월 콜라보GS에서도 모범답안에 선정될 정도로 당시에는 상표법에 가장 큰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차 시험에서 모자란 시간으로 인해 판례집을 등한시하여 판례형 문제인 1, 2번을 너무나도 저득점을 해버렸고, 더군다나 전원합의체 판례인 데이터팩토리에 대한 비판을 기재해버리며 소위 말하는 “폭격”을 당해버렸습니다. 자신감과 자만을 구분하지 못한 채 법리에만 몰두하여 사안과 사실관계를 등한시한 결과 상표법의 저득점으로 탈락을 하게 되었으며 기득 수험생활 내내 그 트라우마를 떨치기 힘들었습니다.

동차 시험에서 판례형 문제로 인해 떨어진 기억이 강렬한 만큼 기득기간 중점적으로 대비한 것은 판례형 문제였습니다. 약술형 문제 혹은 창작사례형 문제의 경우 이미 동차때부터 강점으로 생각했기에 특별한 대비보다는 가벼운 기본서 회독으로 유지하려고 했고, 판례의 경우 최근 5개년의 경우 대법원 뿐만 아니라 원심 및 심판원 쟁점에 대한 분석, 대법원 판례해설 참고 등을 통해 폭 넓은 이해와 판례를 커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시즌, 비시즌 할 것 없이 판례집과 기본서의 비율을 1대1 정도로 해서 회독하려고 노력했으며 회독 주기의 경우 한 달 정도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특허와 마찬가지로

지로 상표법 역시 비시즌 기간에는 매일 쓰기를 통해 답안의 외관을 집중적으로 구성하려고 했으며, 이론강의 기간동안 한경훈 변리사님을 찾아가서 매번 피드백을 받고 좀 더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표법 답안의 경우 모두가 얘기하듯이 사안포섭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허법처럼 목차를 잘게 쪼개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사안의 볼륨감이 느껴지도록 답안을 구사하는 전략을 택했으며, 다논점 문제의 경우 논점과 법리의 직렬적, 병렬적 배치에 대해서도 그 위계의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구분을 확실히 하려고 했습니다.

답안에서의 목차 배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법리의 주소설정입니다. 예시로, 상표의 유사 파트의 경우 기본원리를 제외하고 가장 최상위의 법리는 "상표 유사판단의 일반원칙 판례"입니다. "양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해당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대원칙 하에 각 괄호의 개념 안에 들어있는 판례들을 카테고리화 시켜 논점의 직렬화를 시켰습니다.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의 경우 전체관찰의 상위 개념 아래 <요부, 분리 관찰을 포함>시켰습니다. 요부 관찰의 경우 "요부 관찰의 법리 판례"를 최상위 기준으로 하여 요부 결정의 기준과 요부 결정 방법 등 다양한 판례의 주소를 2D화하여 직렬 병렬의 구조로 숙지하였습니다. 이후 법리가 아닌 특정 사례의 경우 다논점의 결합으로 입체화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는 한경훈 변리사님의 교재인 점, 선, 면 시리즈를 그대로 체화한 느낌입니다.

상표의 경우 기득 기간동안 가독성 및 점수 모범답안에 다수 선정되었으며, GS 시즌동안 평균적으로 상위 한 자릿수 퍼센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동차 : 55.66 / 기득 : 62.66)

메인강사 : 이창한 강사님

메인교재 : 통합민사소송법 & 흐름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의 경우, 아마 동차분들이거나 기득 초반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동차 기간동안 민사소송법을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 했으며 기득 초반까지도 정말 힘들었던 과목이었습니다.

동차 초반에는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현강으로 수강하였고, 4월부터는 사례강의를 현강으로 수강했습니다. 사례강의를 들으면서 저녁에는 이창한 강사님의 사례민사소송법을 매일 40pg씩 암기스터디를 병행했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아무것도 외우지 못하고, 말 할 수가 없어서 입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외우고, 또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사례스터디에 맞춰 꾸준히 사례 민사소송법을 회독하였으며, 5월부터는 빠른 회독 효과를 위해 사례 민사소송법을 4분할하여 월요일은 <1번, 5번, 9번... 사례>, 화요일은 <2번, 6번, 10번... 사례> 형식으로 1주일 1회독의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동차 막판에는 얇은 서브를 활용하여 다회독을 하려고 했고, 다행스럽게도 민소 전날 1회독에 성공하여 민소 성적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고득점의 성적은 아니지만 6월 실전 B형에서 8, 90프로 대 성적이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방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에 들어와서는 합격 발표 전 가볍게 스터디원과 사례 민사소송법 1회독 이후, 새로운 스터디원을 모집하여 동차 때 활용했던 사례스터디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스터디원이 들어왔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스터디에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같은 교재였지만 책을 구석구석 보게 되어 이해의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또한 사례스터디 시간 외에는 동차 때 보지 않았던 C급 이하 쟁점들에 대해 암기스터디를 하며, 최대한 시즌 전 낯선 논점들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시즌에 들어가기 전 1, 2월은 전년도 GS를 활용하여 민사소송법의 쓰기감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했고, 시즌부터는 최신판례의 복습과 GS 복습 및 이창한 강사님의 심화강의 수강을 했습니다. 이창한 강사님 GS의 경우 기복이 꽤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상위 10프로 초반대였습니다.

통합 민사소송법을 위주로 5월까지 회독한 후 6월부터는 얇은 서브집인 흐름 민사소송법도 활용했습니다. 동차 때 전날 1회독했던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아 컴팩트한 교재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혹시나 마이너한 논점이 시험에 출제될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7월 스퍼트 기간 동안 불안함에 시달렸으며 멘탈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시고 다양한 논점을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은 멘탈 관리를 위해 통합을 회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디자인보호법】

(동차, 기득 : Pass)

메인강사 : 김 웅

메인교재 : 김 웅 디자인보호법 2차 교재

동차 때는 시간이 많지 않아 얇은 책으로 기본강의와 실전GS만 수강한 채 시험을 치렀습니다. 다행히도 특허법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Pass할 수 있었습니다.

기득 때 비시즌 동안은 선택을 일절 공부하지 않았으며, 김웅 변리사님의 기초GS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초GS를 현강으로 수강하며 공부에 강제성을 부여했고, 이후에는 3단원 정도씩 매일 암기스터디를 하며 하루에 30분 정도 투자하여 최소한의 공부를 유지했습니다.

6월에 김 웅 변리사님의 실전GS를 수강하였으며, 막판에는 실전GS 자료를 중심으로 회독하여 최대한 컴팩트한 공부량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 수험생활 팁

## 【미학적 답안지】

2차 시험에서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미학적 답안지로 꼽고 싶습니다. 기득에 진입하자마자 답안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한경훈 변리사님께서 제게 "구글이 아니라 애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 한 문장은 저의 기득을 관통하는 문구가 되어 답안의 아름다움을 위해 수없이 노력했으며 가독성 모범답안으로 상당 수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은 답안지 하나 만으로 평가됩니다. 저는 수험 생활동안 단순히 "잘 쓴 답안지"가 아니라 "아름다운 답안지"를 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씨의 크기도 한 줄에 20자로 하는 것이 예쁜지, 25자로 하는 것이 예쁜지 파악하기 위해 크기도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목차 준위를 한 눈에 보이게끔 하기 위하면서도 밀도 높은 답안지를 형성하기 위해 약 반 칸 정도 들어쓰는 답안지를 구사했으며, 판례/ 적극, 소극 등 목차 뒤에 붙이는 다양한 스킴들은 모두 다른 문장부호를 사용해서 한 눈에 결론이나 기재 사항이 보이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답안의 가독성, 아름다움은 글씨체의 가독성과 아름다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글씨체가 아무리 예뻐도 들어쓰기나 답안 구성이 잘못 되어있다면 답안의 가독성은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글씨체가 다소 안 좋더라도 답안의 가독성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목차만으로 채점하는 답안지를 위해 한경훈 변리사님의 가르침처럼 본문의 경우 무조건 문장의 시작과 끝 지점이 맞아야 합니다. 본문을 문단 형태로 박스화 시켜 목차를 한 눈에 들어오도록 배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목차를 본문보다 반 칸 정도 내려쓰는 것도 가독성을 높일 방법입니다.

다만, 극한의 가독성을 추구할 경우 답안의 여백이 늘어나 비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의 글씨체와 크기에 맞게 밀도와 가독성 중 어느 것을 조금 더 챙겨야 예쁜지 끊임없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득의 마무리쯤 접어들 때 느낀 것이지만, 아름다운 답안지는 결국 단순 가독성 뿐만 아니라 주논점과 부논점의 배치, 논점의 강약조절 등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2시간이란 짧은 시간 안에 "결작"을 완성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압박감 속 기득을 보냈는데, 돌이켜보면 실력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공부시간】

후술할 슬럼프와도 연관이 있지만, 저는 장시간 집중을 잘하지 못하는 수험생이었습니다. 물론 비교대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저의 스터디원들은 12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앉은 자리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반면 저의 순공은 10시간을 넘긴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 시간마다 스터디를 쪼개서 진행하며 최대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아침에 쓰기스터디 후 점심식사를 하면서 특허법 암기스터디, 이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민소법 암기스터디, 집에 가기 전 상표 혹은 선택과목 스터디 등 하루에 최소 4번의 스터디를 하며 시간을 잘게 쪼개려고 했고, 정말 집중이 안 될 때는 광고가 자주 있는 핸드폰 게임을 깔고 광고가 시작될 때부터 집중해서 외워보자라는 마음으로 광고를 계속 쳐놓으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부족한 공부 시간으로 인해 항상 "시험에 대한 자질이 부족한가?"라는 물음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깊이 집중하는 능력은 좋았습니다. 현장 GS에서의 문제풀이나 순간 대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암기, 회독 등 시간의 양보다는 집중력의 깊이로 승부하고자 했고 결과적으로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집중을 못하는 분들도 너무 스스로 자책하기 보다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양을 소화하는 방식의 공부도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마음가짐과 슬럼프】

3월부터 본격적으로 GS에 들어가는 기간을 변리사 수험계에서는 (GS)시즌이라고 합니다. 제가 GS 시즌을 대했던 마음가짐과 그로 인해 겪었던 슬럼프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GS 시즌 전에 답안과 지식에 대한 것을 거의 다 완성시켜두고 시즌동안은 거의 실전과 같이 GS를 응시하려고 했습니다. 2월 도약GS에 진입하면서 기초GS+ 4번째 풀답안을 작성했기에 운이 좋게도 도약GS는 극상위권을 유지한 채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약이 되었는지, 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3월부터 극심한 GS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순공 시간이 길지 않았기에, 저는 일주일동안 제 공부가 충분함을 증명할 수단이 매주 필요했고, 그 수단은 GS 성적이었습니디. 3월 한 달 동안 GS 전 날에는 긴장감으로 인해 거의 2시간도 채 잠들지 못하고 수업을 들으러 갔었고, 매 성적이 나오는 날마다 등수에 집착을 했습니다. 3주차 정도부터는 체력과 정신력의 고갈로 극심한 부진이 찾아왔었고, GS를 쓰러가는 것에 부담감이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공부는 GS 위주의 공부로 변질되었고, 많은 불합격 수기에서 본 것 처럼 본질적이지 않은 공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점차 커졌습니다. 하지만 GS 위주의 공부가 아닌 합격을 위한 공부를 찾으려는 순간, 정말 길을 잃은 것처럼 앞으로 어떤 걸 공부해야 할 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상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슬럼프에 대한 극복은 사실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의 트리거가 있었겠지만, 박형준 변리사님과 한경훈 변리사님의 여러 상담과 위로, 또 정말 컨디션이 좋지 않고 망쳤다고 생각한 GS에서 압도적인 성적 받는 경우 등을 경험하면서 점차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GS에 대한 적당한 긴장과 집착은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너무 큰 집착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는 분은 없었으면 합니다. 다만 GS 전날 잠을 안 자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저는 3월 GS에서 잠을 안 자고 갔던 덕분에 막상 시험 전 날에는 "GS 때도 안 자고 가서 잘만 썼는데..."라는 마음가짐으로 더 잘 잠들 수 있었습니다.

## 【종합반 활용】

저는 월비스 2차 종합반을 기득 기간 동안 활용했습니다. 동차때부터 커리큘럼을 따라갔던 이창한 강사님, 박형준, 한경훈 변리사님이 있던 것과 더불어 GS 강평 복습 동영상 제공 및 우선 수강신청이 큰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주말 GS로 인해 약속이라던가 개인 공부 일정에 다소 조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GS 복습 동영상을 활용하여 주말에 강평을 바로 듣지 않고 강평 시간을 활용하여 다른 과목 자습을 하거나, 약속을 잡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특히나, 수강신청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너무 좋았고, 종합반 멘토나 월비스 5층의 자습실 활용도 좋았던 점 같습니다.



## 결어

### 【소감】

합격을 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기를 쓰고 있으니, 정말 영광스러우면서도 감히 제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수기를 읽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도 듭니다.

수험생 시절에는 너무나 쓰고 싶은 글이었지만, 이 글을 쓰는 현재는 참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합격수기는 절대 바이블이 될 수 없습니다. 200명의 합격자는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공부했을 것이고, 저의 수기 역시 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저 공부가 잘 안 되거나 누군가의 경험에 기대고 싶을 때 하나의 이야기처럼 가볍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꼭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여 그 기쁨을 맘껏 누릴 시간이 오기를 소망하며, 감사인사와 함께 이만 부족한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인사】

가장 먼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제가 다른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수험을 준비할 수 있게 물질적, 정신적인 후원을 모두 제공해주신 가족과 부모님께 가장 감사드립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시간을 아무 말 없이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부모님께 드릴 감사는 어떠한 말로도 부족합니다.

이 기약 없는 시험을 준비하는 저를 오랜시간 기다려주고, 또 주말 GS마다 낮시간 데이트까지 포기해 준 여자친구 예진이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수험으로 인해 지쳐 예민해지는 경우도 많고 잘 웃지 못하는 순간도 많았는데 먼저 사회인이 되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제 옆에서 항상 믿고 기다려주고 힘이 되어주어서 고맙습니다:)

또 2차 기간동안 저와 함께 스터디를 했던 분들. 저보다 1년 먼저 시험을 준비하며 항상 많은 정보도 주고 성심성의껏 챙겨준 60기 정예송 변리사님, 맨날 좋은 얘기보다 싫은 얘기를 더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만 드는 진솔이, 겨울동안 매일 쓰기랑 사례스터디하면서 같이 고생하던 동현이형 모두 고맙고, 동차 때부터 기득까지 저의 모든 수험을 매일 함께하고 저에게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던, 정말 같이 고생한 수험메이트 순창이형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인사를 올릴 때는 은사를 빼먹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전날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다음날 제 질문을 잘 이해 못하셨다며 다시금 강의 시간에 별도의 자료를 만드셔서 설명해주시던 이창한 강사님. 제 상표법의 뼈대를 세워주시고, 저의 답안지의 기틀과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해주신 한경훈 변리사님. 매주 저를 보고 안부도 물어봐주시고 스몰 토크도 하면서 정답이 없는 어려운 질문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해주신 박형준 변리사님. 수백명 중 한 명의 수험생에 불과한 저를 기억해주시고, 답안의 인상이라던가, 슬럼프가 온 것 같다는 막연한 질문 속에서도 정말 온 힘을 다해 답을 해주시고 저의 안부를 물어봐주시던 경험은 정말 다신 없을 소중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창한 강사님, 박형준 변리사님, 한경훈 변리사님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